

2025 국악창작곡개발

'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결과

□ 심사 개요

- 심사명 : 2025 국악창작곡개발-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5년 2월 18일(화), 10:00~17:0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총 5명

이름(가나다순)	주요 프로필	비고
고주희	- 안산시립국악단 수석 단원 - 지영희 해금산조 보존회 이사 -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 겸임교수	
김백찬	- 2009년 제3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수상(청배) - 영화/무용음악, 지하철 음악 등 다수 작곡 - 국악방송 '작곡가 세종을 만나다' 음악 작곡 - 2019년 KBS국악대상 작곡상 수상	
김상연	- 2020년 KBS국악대상 연주 관악상 수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브랜드 공연 '대동' 총감독, 하얼빈 민족교류음악회, 2024 세계음악극 페스티벌 예술감독 등 -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심사위원장
김윤희	- 202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수상 - 2015년 KBS 국악대상 단체상(바라지) 수상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	
이정호	- 2024년 제16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 2023년 제42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 2022년 KBS국악대상 작곡상 수상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100점)	심사기준
대중성	30점	- 동시대성의 확보 및 대중 친화도
음악의 완성도	30점	- 노래곡, 연주곡별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곡
독창성과 창의성	20점	-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
국악적 요소의 반영	20점	- 국악어법(선율과 장단)이 살아 있는 곡

□ 심사 결과

○ 심사 결과 : 총 20곡 선정

팀명	참가곡명	구분
유수(幽遂)	익애(溺愛)	연주곡
판도라(PANDORA)	대장장이 신	연주곡
묵향여백(墨香餘白)	PERSONA:가면	연주곡
스트링즈	그리워질거야	연주곡
우리음연구소	도깨비	노래곡
MUNDUS	불안의 경계	연주곡
오름새 프로젝트	떼루	노래곡
프로젝트 넷	계수나무:달 속에 나무	연주곡
프로젝트 금	사(絲)물놀이	연주곡
삼산	21C 한국음악	노래곡
차잔밴드	가녀린아이	노래곡
창작민속악 그룹 '화온'	수류가(水流謠)	노래곡
조선버전	범람	연주곡
무던MU:DERN	무던히	노래곡
FROM310	뷰카(VUCA)	연주곡
비랑	어둑시니	연주곡
JOYY	건드렁	노래곡
메탈리즘	낯고 녹슨...	연주곡
#13(샤일삼)	배봉리의 기다림	연주곡
굿굿(Good굿)	소명(召明)	노래곡

※ 선정곡은 접수번호 순으로 기재하였음.

※ 대회운영지침 제18조 3항 “예선 및 본선 심사결과 발표 후라 하더라도 음반, 공연, 방송 등에 발표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선정된 작품이 추후 대회 운영지침에 기준하여 ‘발표곡’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요 심사평

이름(가나다순)	심사평
고주희	올해로 19년째 맞이하는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참가자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트있고 신선한 곡들, 또 여러가지 고민과 철학적인 얘기들을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다채로운 음악들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음악적인 장르의 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와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융합되어 색다른 작품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국악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계속하여, 더욱 발전된 테크닉과 다양성을 더해 대중성과 함께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이 탄생하고 더욱 많이 연주되어 한국음악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관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객층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백찬	참가곡 전체적으로 음악에 열정이 느껴지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대중을 지향하는 음악이 다소 부족했다고 느낀 점과, 그와는 반대로 매우 실험적인 시도의 곡 또한 없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출품곡 대부분이 마이너 키로 되어있어 밝은 느낌의 곡이 많이 없었던 것 또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p>김상연 (심사위원장)</p>	<p>'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점점 더 동시대성에 근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음악적 소재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 작품성은 물론 얼마큼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지와 향후 여러 유통구조를 통한 확장성도 기준으로 삼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작품 중에 대중성과 독창성은 뚜렷하나 전통음악적 요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음악적 수준과 관계없이 감점을 두었고, 전통적 요소가 부족해도 보컬이나 연주자의 발성과 표현이 전통에 중점을 두는 경우 감점 요소에서 제외하였습니다.</p> <p>특정 3~5팀 정도는 향후 여러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나머지 선정팀들도 멘토링 과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서 본선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듯합니다.</p> <p>이번 지원팀들은 실험적인 시도를 가진 팀들과, 기존 '21c한국음악프로젝트'나 대중적 노출을 통해 널리 알려진 팀들의 음악 컬러들을 응용하여 한발 더 나아가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정체성을 만들어 낸 팀들 등 다양하게 지원하였는데, 이런 현상이 전통 예술계의 예술가로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p> <p>전통예술계의 가장 큰 과제는 콘텐츠의 지속성과 확장성인데 현재 '21c한국음악프로젝트'가 그 선봉에서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어 심사위원으로서 주최측인 국악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김윤희</p>	<p>1차 심사에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전하려는 메시지와 음악적 구성과 구현, 무대 위 예술가로서의 매력과 가능성, 다시 말해 '또 듣고 싶고, 또 보고싶은가' 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태도, 정성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오래 오래 활동하시면 참 좋겠습니다.</p>
<p>이정호</p>	<p>예술가들의 고민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많았고, 나름의 스토리와 철학을 만들어 음악에 담았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보았고, 지원한 작품들이 각각의 개성이 다 있었습니다. 다만, 아주 새롭고 참신한 작품은 몇 작품 안되어서 아쉬웠습니다.</p> <p>기발한 아이디어 속에 국악의 색깔과 깊이를 표현한 작품이 많이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무거운 작품이 다소 많았는데, 어둡고 심오해야만 예술성이 높은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현대인의 공감 속에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살아있는 음악을 기대합니다.</p>

□ 향후 일정

구분	일시 및 장소	비고
<p>2차 예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2차 예선 안내 및 2차 예선 경연 순서 추천 - 2차 예선 기술사항 확인 등</p>	<p>2월 25일(화), 14:00~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 DMS빌딩 12층)</p>	<p>- 팀 대표 또는 작곡가 1-3인 참석 - 모든 팀 참석 필수</p>
<p>2차 예선 (실연 심사 / 공개)</p>	<p>3월 1일(토)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p>	<p>- 10팀 선정 예정</p>

□ 문의처

-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 / 21cproject@igbf.kr